





교육정책연구 2020-022

# 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질적 연구 : 익산○○초등학교 다모임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양유라 외 3명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 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질적 연구 : 익산○○초등학교 다모임을 중심으로

발간등록번호 전북교육 2020-485

전북교육정책연구 2020-022

발행일 : 2020년 12월 17일

발행인 : 전북교육정책연구소장 김정기

발행처 :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전북교육정책연구소

주 소 : (우54927)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91

전 화 : 063-250-3753

팩 스 : 063-250-3769

이메일 : unb0707@jbedu.kr

ISBN 979-11-91269-06-2(93370)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교육정책연구소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만든 사람들

---

**연구진** 양유라 왕궁초등학교 교사  
장순애 이리팔봉초등학교 교사  
정석균 왕궁초등학교 교사  
홍현주 여산초등학교 교사

---

**연구자문** 김한별 정읍서초등학교 교사

---



## 연구요약

2015 개정교육과정은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별도의 교과가 없기 때문에 범교과 학습주제로 권고될 뿐 직접적인 구현은 부족한 실정이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로는 사회와 도덕 교과가 있으나 체험 및 참여의 경험은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것이 창의적 체험활동이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 중심의 실천적 수행을 하면서 민주시민성에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를 체득하고, 일상에서의 실천의지를 기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학생자치활동에 주목하였다.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교과 외 활동을 말한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하여 학생자치활동의 정의들을 조합해보면 자치활동 개념의 핵심은 학생의 자발적 참여 의지와 주도성이라 볼 수 있다. 학교 내 자치활동의 근간은 국가교육과정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법과 조항과 조례 등을 통하여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 참여 양상을 관찰과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 학생들이 실제로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며,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나 학생자치활동의 민주시민성 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밝혀진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 사례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얻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탐구하고 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았다.

연구 참여자로는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어있고, 학생자치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학교를 목적 표집하고자 하였으며, 학

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학생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선정하고, 이 중 전교학생회장 1명, 부회장 1명, 6학년 두레 이꿈이<sup>1)</sup> 6명 등 총 8명의 학생 및 학생자치 담당교사와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다모임 및 학급자치활동의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자료 수집은 ○○초등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전교학생회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다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인터뷰)을 진행하여 이를 주요 자료원으로 하였다. 이 외, 학교 홈페이지와 밴드에 게시된 학생회 관련 기록물, 활동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또한 사례 연구 방법은 사례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자료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 이를 위해, 전사 작업, 분석 메모, 개방 코딩, 심층 코딩, 주제 발견으로 구체화하여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러 요소들이 학생들의 참여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 안건이었다. 다모임의 안건은 크게 행복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 행사 참여에 대한 안건과 일반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안건으로 나뉘어졌는데, 학생들은 학교 행사 참여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자기들의 결정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결과를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인 반면, 안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안건의 경우, 학생들이 단순히 건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과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자치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심층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한정된 시간, 회의 공간 부족, 예산 운영·편성에서의 제한된 권한,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 미흡 및 무관심으로 인한 학생 간 갈등 등으로 어려움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

1) 두레 이꿈이란 ○○초등학교의 다모임 활동에서 6개 두레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로 각 두레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회의 진행을 돕고 있는 6학년 학생들을 일컫는다

학생자치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으로 손꼽은 것은 다모임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다모임 시간에 논의해야 할 안건에 할애된 회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 안건에 대한 두레별 대표 의견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두레 이کم이가 두레의 대표 의견을 발표한 후 학생들이 다시 한 번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시간에 쫓겨 촉박하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주도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제한된 참여가 이어진다면 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학생회 임원 또는 소그룹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학생들만의 별도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전라북도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2019학년도 학생자치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 공간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초등학교 학생자치 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학생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실천 활동을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학생자치활동 촉진을 위해 물리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겠다.

한편,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예산 및 활동 기획은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맡겨져 있지만, 활동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학교 관리자나 담당교사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결재 라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학생들은 다모임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운영 계획을 짜고 수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을 구입하려는 경우,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지만, 학생자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가 실효를 갖도록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부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두레 구성원의 무관심과 회의 주제 및 의사결정 과정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학생자치활동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는 전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다모임에서의 논의의 취지나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의 논의가 전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의미와 결과를 주는지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다모임 의사 결정과정에

서 일부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만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리 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위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통하여,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능력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긍정적 자아를 발견하며, 나아가 함께 어우러져 존중하며 살아갈 힘을 기르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실효성 높은 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현장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 목 차

<b>I. 서론</b> .....	<b>1</b>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2. 연구 문제 .....	5
<b>II. 이론적 배경</b> .....	<b>7</b>
1. 민주시민교육의 동향 .....	9
2.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이해 .....	16
<b>III. 연구 방법</b> .....	<b>23</b>
1. 연구 설계 .....	25
2. 연구 참여자 .....	26
3. 자료 수집 방법 .....	28
4. 자료 분석 방법 .....	28
<b>IV. 연구 결과</b> .....	<b>31</b>
1.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양상 .....	33
2. 학생자치활동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	39
<b>V. 결론 및 제언</b> .....	<b>51</b>
1. 결론 .....	53
2. 제언 .....	55
참고문헌 .....	61

## 표목차

〈표 Ⅱ-1〉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11
〈표 Ⅱ-2〉 2015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12
〈표 Ⅱ-3〉 2020 전북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정책과제 '민주적인 학교 문화조성' 주요 내용.....	14
〈표 Ⅱ-4〉 자율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	17
〈표 Ⅱ-5〉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근거 .....	18
〈표 Ⅲ-1〉 면담 대상자 정보.....	27
〈표 Ⅳ-1〉 ○○초등학교 다모임 주제.....	34
〈표 Ⅳ-2〉 2019학년도 학생자치 학생 참여 현황.....	45



## 그림목차

[그림 IV-1] ○○초등학교 다모임 두레별 의견 나누기 ..... 35



제 I 장

#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 문제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지난 2016년 10월부터 약 5개월 동안 이어진 촛불집회는 시위의 성격 자체가 정치적인 목적을 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가결을 이끌어내면서 평화적인 정권 퇴진까지 이어진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남았다. 한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를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라는 슬로건이나 ‘다수결을 통해 의사를 결정해야 옳다.’라는 견해가 민주주의에 대한 편협한 시각 또는 잘못된 인식이었음을 되돌아보게 하였다. 민주주의는 시민의 주권 행사와 기본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사회이다. 촛불집회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소수의 사람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있고, 누군가에게 공직을 맡길 때에는 그의 신분이나 특정 지위가 아닌 재능과 역량을 고려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은 스스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대하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국민은 스스로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정책에 대하여 토론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 결정하는 힘은 그냥 생기지 않는다. 이런 힘은 어릴 적부터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고,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환경에서만 자신의 목소리를 또렷하게 낼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다. 이러한 힘은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으로 갖출 수 있고, 최근 학교에서 지향하는 교육 방향도 이렇다. 이는 국가교육과정문서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2015 사회과 교육과정 1장 성격’에서는 민주시민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사회과에서 육성하고자 하는 민주시민은 사회현상을 이해하고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지식의 습득을 바탕으로 인권 존중, 관용과 타협의 정신, 사회 정의의 실현, 공동체 의식, 참여와 책임 의식 등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개인적, 사회적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 개인의 발전은 물론 사회, 국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람이다.

-교육부(2015). 사회과 교육과정 1장 성격

이를 살펴보면 민주시민은 인권존중, 관용과 타협, 공동체 의식과 같은 민주시민의 소양, 즉 시민성을 갖춘 사람이라 정의하고 있다. 시민성(democratic citizenship)이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평생에 걸쳐 실천 행위를 통해 추구해야 할 가장 넓은 의미의 가치이다(심성보, 2017). 즉, 민주시민이란 민주시민성을 지니며 사회에 참여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려는 사람이다. 이러한 시민성은 사회와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교육현장에서 다룰 필요가 있는 가치이다(심성보, 2017; 정철민, 2017). 바로 이러한 시민성을 기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민주시민교육은 일차적으로 이러한 민주시민성을 기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러한 시민성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학교구성원에게 작은 사회인 학교 또한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하여 학교구성원이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서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교육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학교의 3주체인 교사, 학생, 학부모는 각자 학교 안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 직접 뜻을 모으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지금까지의 학교는 그렇지 못했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주인이 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가장 첫 번째로 자율성을 고민해야 하지만, 학교와 제도의 문턱이 높았다. 학생들은 입시 위주의 교육활동 속에서 일상화된 경쟁, 양육강식, 우열성패 등 기성 사회의 부정적 요소를 조기에 습득한 채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공동체 의식과 자치 역량을 갖추기 어려웠다. 그동안 학교 구성원은 스스로의 문제를 판단하고 분석하며 결정하는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함에 따라 자기 통제권과 자기 결정권이 미약한 실정이다.

학생은 학교공동체에서 자치와 참여를 실천해가는 활동을 통해 시민으로 갖는 중요한 권리를 이해하고 실현해갈 수 있으며, 학교 민주주의를 형성해 나가는 것은 다른 아닌 사회적 차원의 민주주의를 형성해 가는 하나의 과정이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학생자치활동은 실천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은 '학생자치'의 형태로 가장 잘 드러난다. 어릴 적부터 학교 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자신의 의견을 내고, 주도적으로 학교 내의 여러 사안을 이끄는 힘은 다른 아닌 자치활동으로 길러지며, 자치활동이 학생들의 정치 효능감, 갈등 해결 및 사회 참여 능력, 리더십, 공동체 의식 등 민주시민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많은 선행연구를 통해 알려졌다.

박가나(2009)는 학생자치활동 참여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건의하고 항의하는 것, 캠페인 참여와 같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이 정치적 효능감을 높임을 밝혔다.

황미영·박성혁(2014)은 중학교 3학년 학생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학급 임원활동과 학급회 참여 경험, 개방적 학급풍토가 학생의 정치자신감과 흥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학생자치활동 중요성과 참여 경험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함은혜·백선희(2016)는 2007년과 2010년, 즉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3학년 시점에 2회 반복 측정된 자료를 활용한 종단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의 공동체의식, 협동성, 정치참여의 평균적인 변화 양상을 파악하고, 교내 교우 관계와 교사의 헌신도가 학생들의 공동체 의식, 협동성 정치참여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을 밝혔다.

이에, 본 연구는 학생자치활동의 효과를 학생들이 체득하기까지의 과정에 집중하였다. 익산○○초등학교 다모임과 학급회의를 중심으로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의 표현의 자유나 참여의 권리를 인정하고, 학생 스스로 학생 권리에 대한 의식을 향상하며 학생이 학교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자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질적 사례 연구를 실시하였다. 다모임, 학생자치법정, 학생회 주관 행사 등을 경험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양상과 학생자치활동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구체화해 나가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초등학교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질적 연구로써 학생들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여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돕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현장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에,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양상은 어떠한가?
- 나. 학생자치활동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어떠한가?



## 제II장

# 이론적 배경

---

1. 민주시민교육의 동향
2.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이해



## II. 이론적 배경

### 1. 민주시민교육의 동향

#### (1) 민주시민과 민주시민교육

민주시민이란 민주주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의감, 책임감, 준법 의식, 관용, 배려, 다문화적 소양 등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춘 시민을 말한다.

S. H. Engle & A. S. Ochoa(1988)는 ‘시민’은 국가가 개인에게 수여한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국가의 구성원으로, ‘시민성(citizenship)’은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시민은 시대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민주주의를 가꾸고 실현해 가는 주체로서의 ‘민주시민’은 지역과 국가를 초월한 보편적 권리와 의무를 가진 존재를 일컫는다.

민주시민은 숙련되고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자여야 하며,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사회문제에 있어 책임감을 가지고 지적 결정을 내리는데 참여하는 의사결정 기능, 지식과 태도는 민주시민의 핵심 역량이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국가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사회 문제에 대하여 숙련된 의사결정을 내리며 참여하는 사람이다. 더불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용의 자세를 가지고 바람직한 가치를 내면화하여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려는 소양을 갖춘 시민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다음은 2015 개정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의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교육부(2018), 2015 개정교육과정 초·중등학교교육과정 총론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공교육은 민주주의에 토대를 둔 민주적 교육을 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의감, 책임감, 준법 의식, 관용, 배려, 다문화적 소양 등의 역량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행하고자 한다.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민주주의 원리를 존중하고 실천하는 태도를 가지며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시민, 자유와 평등의 민주주의 가치를 존중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의감, 책임감, 준법 의식, 관용, 배려, 다문화적 소양 등 여러 가지 역량을 갖춘 시민을 육성하는 것이다.

서윤수(2009)는 민주적 자질과 소양을 갖춘 시민을 기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라고 명시하며, 인간존엄, 자유와 평등을 근본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생활 원리로서 관용, 공동체 의식, 소수 의견 존중, 참여 정신을 가진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라고 제시하였다.

신두철·허영식(2008)은 민주시민교육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 각자가 민주적인 사회생활 또는 정치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방향 감각을 획득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사회·정치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갖추고 올바르게 인식하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윤종원(2014)은 올바른 민주시민의식 형성을 위하여 어린 시절부터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학교가 민주적 공동체를 체험하는 장소가 되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염경미(2018)는 학교교육과정에서 교사가 목적의식을 가지고 교과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나아가 학교문화를 포함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더 나은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 가치와 태도, 참여와 실천을 학습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일상에서의 민주주의를 실천하여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효능감을 높이도록 하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적 자질과 소양을 갖추고 개인적 행복을 추구하는 동시에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소통하고 공감하며 배려하고 책임지는 역량을 갖추는 교육으로 민주사회를 구성하는 민주시민을 육성하는 교육이다.

## (2) 2015 개정교육과정 내 민주시민교육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15 개정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민주시민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라 항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교육부, 2015)이라 명기하였다. 그러나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는 별도의 교과가 없기 때문에 범교과 학습주제로 권고될 뿐 직접적인 구현은 부족한 실정이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교과로는 사회와 도덕 교과가 있다. 먼저 사회 교과는 서두에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지님으로써 민주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교과”(교육부, 2015)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교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교육부, 2015)고 명기하였다.

곽혜송·홍미화(2017)은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을 다음의 표와 같이 분석하였다.

〈표 II-1〉 2015 개정 초등 사회과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학년군	영역	내용
3~4학년군	지식·이해	정치:공공기관
	사회·문화	사회문화:사회변화, 다문화 사회의 문제와 해결방안
	가치·태도	타문화 존중
	참여·실천	지역 문제 해결
5~6학년군	지식·이해	정치: 인권, 헌법, 기본권, 법의 의미와 성격, 자유민주주의, 민주화 과정, 시민의 정치 참여의 역사, 민주주의의 의미와 중요성, 민주적 의사 결정의 원리, 민주정치 기본 원리, 국회·행정부·법원의 기능, 남북통일, 지구촌 평화, 지구촌 환경문제, 지속가능한 미래
		경제: 경제적 정의
	가치·태도	권리와 의무의 조화, 준법, 민주주의 실천 태도, 세계 시민의 자세
	참여·실천	민주적 의사 결정 원리의 실천, 지구촌 평화 방안의 모색, 세계 시민으로서의 참여

- 곽혜송·홍미화(2017), p.13

위의 표를 분석해보면 사회교과 영역 중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지식 및 이해 영역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 교과 내용의 대부분은 시민권의

이해나 민주주의의 개념, 민주정치의 체제를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는데 치중되어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의 습득과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이해는 분명 중요하나,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참여와 실천의 네 개의 영역에서 고르게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실천적 행위의 추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도덕과 역시 사회과와 더불어 직·간접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교과 중 하나이다. 2015개정 도덕과의 성격을 살펴보면 “도덕적인 인간과 정의로운 시민이라는 중첩된 인간상을 지향점으로 삼아 21세기 한국인으로서 갖추고 있어야 할 인성의 기본 요소인 핵심 가치를 확고하게 내면화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도덕과는 학교 인성 교육의 핵심교과이나 동시에 공동체 의식 함양이라는 관점에서 민주시민교육도 함께 실현하려는 목표를 가진다.

〈표 II-2〉 2015 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

학년군	영역	내용
3~4학년군	(2) 타인과의 관계	가족 간에 지켜야 할 도리와 약속, 이해와 인정, 협동
	(3)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다문화, 통일
5~6학년군	(2) 타인과의 관계	통일, 공중도덕
	(3) 사회·공동체와의 관계	갈등해결, 봉사, 인권, 공정, 통일, 세계화

- 곽혜송 · 홍미화(2017), p.13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개정 초등 도덕과 교육과정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내용은 공동체 속 개인이 갖추어야 할 ‘선’의 관점에서 이해된다(곽혜송 · 홍미화, 2017). 즉, 현상에 대한 탐구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는 사회과에 비해 도덕과에서는 공동체나 타인과의 관계 내에서 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덕을 중심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주로 인성교육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다루다보니 지나치게 넓은 의미에서 시민성에 접근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 및 도덕 교과만으로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지식과 덕목을 이해할 수 있으나, 체험 및 참여의 경험을 느끼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교과 이외에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다루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앎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이다(교육부, 2015). 유제순(2017)은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이 협업적 관계를 맺으면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활동을 전개할 때 시민성 차원의 앎, 내적 변화, 실천적 행위 간의 정합성을 갖출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주목해야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은 다양하고 풍부한 체험 중심의 실천적 수행을 하면서 민주시민성에 관련된 지식, 기능, 태도를 체득하고, 일상에서의 실천의지를 기를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실시하는 교과과정 이외의 활동으로, 크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4가지 세부 영역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 대표적으로 학생자치활동에 주목하였다. 학생자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세부 영역이 자율활동에 포함되어 있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논의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한다.

### (3) 전라북도교육청의 민주시민교육 정책

전라북도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해 2019년 민주시민교육과를 신설(2019.3.1.)였다. 민주시민교육과의 신설로 그동안 여러 부서에서 나누어 진행하던 업무들을 한 곳으로 집중해 지원·추진함으로써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의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2019.2.1.)」와 시행규칙(2019.9.18.)을 제정하고, 「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2019.12.6.)」를 개정하여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여 이와 같은 기준은 학교 내 민주적인 협의문화와 자치 기구를 활성화하고 민주시민교육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전북교육은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교육비전으로 제시하였다. 전북교육은 교육비전에서 ‘인권, 자율, 창의, 배려, 협력, 자발성, 권리, 참여, 소통, 공동체’ 등 민주시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하였다. 전북교육은 교육비전에서 전북교육이 나아갈 방향으로 민주시민성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를 실천하는 시민을 양성하는 것을 밝힌다.

전북교육의 교육지표는 보다 구체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다루고 있다. ‘자치와 협력으로 참된 민주시민 육성’이라는 교육지표는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민주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하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민주시민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제시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은 2020년 주요업무계획의 5가지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신뢰와 존중, 가르침이 행복한 선생님’을 설정하고, 정책 과제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과 ‘교권 존중과 신뢰하는 학교’를 설정하였다. 그 중,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세부 항목으로 ‘일상

에서 체화되는 민주시민교육'을 명시하였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 하고 도덕성과 시민성이 조화를 이루는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에 교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민주학 교, 민주시민교육연구회 등을 운영하고 민주시민교육 사제동행 동아리, 학생 현장체험, 토론 및 체험학습 등을 지원하였다.

다음은 정책 과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의 세부 항목과 내용을 표로 정리한 것이다.

〈표 II-3〉 2020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 정책 과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주요 내용

항목	내용
교육주체가 함께 하는 학교자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자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 안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 학교자치기구 활성화</li> <li>- 학교의 민주적 운영 실태조사, 학교자치 연수 및 컨설팅(100회)</li> </ul> </li> <li>□ 학교 내 민주적 소통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로 찾아가는 소통문화개선 전문지원단 거점학교 운영(30교)</li> <li>- 소통 촉진, 비경쟁토론 등 학교현장 전문가 양성 연수(3회)</li> </ul> </li> <li>□ 학교자치 전문성 강화</li> <li>□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통한 소통 확대</li> </ul> </li> <li>◎ 학생자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기본운영비 1% 이상 의무 편성</li> <li>- 자치활동 시간 확보 (초·중10시간, 고17시간이상)</li> </ul> </li> <li>□ 환경 조성 및 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회실(74교) 및 학생 사위실 설치(40교),</li> <li>- 학생자치자료 개발 및 보급(2종)</li> </ul> </li> <li>□ 연수 및 컨설팅 운영</li> <li>□ 학생자치·인권 토론회</li> </ul> </li> <li>◎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li> </ul>
일상에서 체화되는 민주시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와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 조례」 근거한 정책 수립 및 시행</li> <li>□ 교원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li> <li>□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학교(11교), 민주시민교육연구회(2팀) 운영</li> <li>- 교육과정 안에서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50교) 지원</li> <li>- 민주시민교육 사제동행 동아리(13팀) 등</li> </ul> </li> </ul> </li> <li>◎ 도덕성과 시민성을 키우는 인성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성교육 시행 계획 수립 및 운영 평가</li> <li>□ 앎과 삶이 하나 되는 학교인성교육 내실화</li> </ul> </li> </ul>

항목	내용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교육교류 추진</li> <li>◎ 평화통일교육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li> <li>▫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 청소년 평화통일 문화마당(20팀), 학생 평화통일 공감캠프(8회), 호국보훈행사 지원, 교원 평화통일 캠프, 학생 평화통일 영화제 운영(2기관, 200명)</li> </ul> </li> <li>▫ 교원 평화통일 전문성 제고</li> <li>▫ 평화통일교육 지도자료 개발</li> </ul> </li> </ul>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인권교육센터 운영</li> <li>◎ 인권교육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인권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인권 아카데미(6회), 사제동행 인권동아리(100팀)</li> </ul> </li> <li>▫ 인권(노동)교육 강사단 운영, 인권교육 지원</li> <li>▫ 전라북도 학생인권의 날 운영(4월 2일)</li> </ul> </li> <li>◎ 학생참여위원회 운영</li> </ul>
2030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대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30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잰버리대회 성공 개최 지원</li> <li>◎ 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세계시민교육</li> </ul>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li> <li>◎ 방과후학교 및 야간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의 선택권 보장</li> </ul>

2019년도 전라북도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과 비교해보았을 때, 2020년 민주시민교육 정책 과제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 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2019년 「전라북도 학교자치 조례(2019.2.1.)」와 시행규칙(2019.9.18.)을 제정하고, 「전라북도 학교민주시민교육조례(2019.12.6.)」를 개정으로 학교 구성원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민주적 교무회의 운영과 학교자치기구 활성화를 통하여 학교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찾아가는 학교자치 연수 및 컨설팅(100회), 학교로 찾아가는 소통문화개선 전문지원단 거점학교 운영(30교), 소통 촉진, 비경쟁토론 등 학교현장 전문가 양성 연수(3회)를 새롭게 실시하면서 학교자치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생회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이상 의무 편성하고 자치활동 시간을 확보하며, 학생자치자료 개발 및 보급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학생자치·인권 토론회를 실시하며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학생자치 활성화 부분

에서는 환경 조성에 많은 비중을 두었다. 2019년 초등학교 16교, 중·고 16교에 학생회실을 설치하는데 교당 100만원씩 지원한 데 이어, 2020년에는 초·중·고 총 74개교에 총 7,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학생회실 설치를 대폭 지원하고, 학생 샤워실 설치로 40교에 2,598백만 원을 새롭게 지원한다. 학생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는 양상이다.

또한 2019년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민주시민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민주학교 운영 수를 2019년 3교에서 11교로 대폭 늘렸으며, 교육과정에서 성장하는 민주시민교육 50교를 새롭게 지원하였다. 또한 민주시민교육 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사제동행 동아리를 13팀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 외, 평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통일교육,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 아침이 행복한 학교, 저녁이 자유로운 학교 등 세 가지 항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2030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2.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이해

### (1)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찾아 책임을 다하는 과정을 통하여 시민성을 갖추어 나가는 학생 주도적인 활동을 말한다(정구영·박대식, 2020).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며 참여를 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기르게 된다. 박가나(2001)는 학생자치활동을 학생들이 학급구성원으로서, 또는 학교 전체 구성원으로서 역할 분담을 통해 학급 또는 학교 전체의 공공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나가는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한희택(2009)은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집단 활동으로,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과 태도를 함양해 나가는 활동이라 정의했다. 김윤나 외(2010)는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외부의 간섭이나 압력 없이 구성원 자신의 합의와 의사결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청소년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황여정(2018)은 자치활동을 단순한 활동 참여에서 더 나아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관여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해석하였다. 여러 정의들을 조합해보면 자치활동 개념의 핵심은 학생의 자발적 참여 의지와 주도성이라 볼 수 있다.

학교 내 자치활동의 근간은 국가교육과정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5 개정교육과

정 내의 자치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가지 영역 중 하나인 자율활동의 하위 활동에 해당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와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압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심신을 조화롭게 발달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과 이외의 활동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의 함양을 통해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 학생의 발달 단계와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학교 급별, 학년(군)별, 학기별로 영역 및 활동을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공동체 생활에 필요한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개성과 소질을 탐색하고 발견하는데 중점을 둔다.<sup>2)</sup> 학생자치활동은 적응활동, 창의주제활동과 함께 자율활동을 구성하는 활동이다. 자율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4〉 자율활동 영역의 활동별 목표와 내용

활동	활동 목표	활동 내용(예시)
자치·적응 활동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고,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길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생활습관형성활동 - 예절, 준법, 질서 등</li> <li>■ 협의활동 - 학급회의, 전교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자치법정 등</li> <li>■ 역할분담활동 - 1인 1역 등</li> <li>■ 친목활동 - 교우 활동, 사제동행 활동 등</li> <li>■ 상담활동 - 학습, 건강, 성격, 교우 관계 상담활동, 또래 상담활동 등</li> </ul>
창의 주제 활동	학교, 학년(군), 학급의 특색 및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주제를 선택하여 활동함으로써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학년·학급특색활동 - 100권 독서하기, 줄넘기, 경어 사용하기, 연극놀이, 뮤지컬, 텃밭 가꾸기 등</li> <li>■ 주제선택활동 - 주제 탐구형 소집단 공동 연구, 자유 연구, 프로젝트 학습(역사탐방 프로젝트, 박물관 견학활동) 등</li> </ul>

창의적 체험활동에 제시된 자치·적응활동의 활동목표 중 학생자치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은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생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과 다양한 단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나눔과 배려

2)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p.3

를 실천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자치활동은 학급회의, 전교회의, 모의의회, 토론회, 자치법정 등 다양한 형태의 협의 활동에서 출발한다. 소규모 학교에서는 다모임이라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협의활동을 실시하기도 하며, 대규모 학교에서는 학년별로 학년다모임을 통하여 전교회장단 임원뿐만 아니라 학생 모두가 자치를 경험하고 민주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한다. 최근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학생회의 운영을 기점으로 학교생활규정 개정, 학교 행사 참여, 계기 활동, 친교활동, 자율 동아리 활동, 프로젝트 학습 등 다양한 활동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 (2)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근거

학생자치활동은 법과 조항과 조례 등을 통하여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근거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11-5〉 학생자치활동의 법적 근거

종류	조항	내용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 (교육의 자주성 등)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법	제3장 제1절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1장 제9조 제8항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장 제1절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2장 제6절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의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의 의해 선출된다.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종류	조항	내용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2장 제6절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권)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제6절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권)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학생의 학교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을 살펴 보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라고 제시하였다. 이 조항은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등 학교 운영 관련 사항에 참여를 보장하고 있어 학생자치의 근거 조항이라 볼 수 있으며, 자치활동이 교육의 자주성을 실현하는 방법임을 설명해준다.

초·중등교육법 제3장 제1절 제7조에서는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학생의 권리로서 학생자치활동의 중요성을 드러내는 조항이며, 직접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장 제9조 제8항에는 학교 규칙에 자치활동 조직 및 운영을 기재하고 있으며, 제3장 제1절 제30조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장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하였다.<sup>3)</sup>

3) 김래연, 『작은학교다모임』, 미래와 경영, 에듀니티, p.49

한편, 전라북도는 2013년 7월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를 공포하였는데, 제2장 제6절은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대한 내용으로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이는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한 서울(2012년 1월 공포), 경기도(2010년 10월 공포), 광주(2013년 7월 공포), 충남(2020년 6월 공포)과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생자치활동은 다양한 법과 조항과 조례 등을 통하여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현장에서 학생 참여는 미흡한 실정이다. 동아리, 학생회 그 밖의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표면상 학생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 학생 참여도,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행사, 학생 자치 행사에서 학생의 실질적 참여 정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3)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들이 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학교 운영 등에 참여하는 활동이다(박가나, 2001; 이병환, 2012).

학생자치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일부로 진행되는 학생자치활동이 민주시민교육에 미치는 영향과 학생자치활동의 교육적 효과성을 탐색해보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연구 주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대부분이 활동 및 경험, 프로그램의 효과성 입증 및 민주시민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김윤나 외, 2010; 박가나, 2008; 오효정·이진석, 2012; 송수지 외, 2012; 황미영·박성혁, 2014; 한희택, 2009; 함은혜·백선희, 2016; 황여정, 2018)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외에 경험에 대한 함의(박정서, 2012; 정형수·김경식, 2017) 사례에 관한 쟁점과 의의 분석(김건아, 2019; 김유정, 2020, 서재민, 2020; 전은희, 2014) 등이 있다.

연구 방법의 측면에서 보면 설문지와 통계를 이용한 양적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며(김윤나 외, 2010; 박가나, 2008; 오효정·이진석, 2012; 이경운, 2017; 박정서, 2012; 한희택, 2009; 함은혜·백선희, 2016; 황미영·박성혁, 2014), 일부 연구가 문헌 분석을 통한 양적 연구를 진행하였다(김위정, 2016; 송수지 외, 2012). 최근에 들어서 현장조사 및 심층면담을 기반으로 한 질적 연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김건아, 2019; 김유정, 2020, 서재민, 2020; 전은희, 2014, 정형수·김경식, 2017).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김건아(2019)는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학생자치활동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를 통하여 학생들은 자치활동을 통해 개인적 내적 변화 및 시민의식 성장의 성과를 얻었으나 단순히 자치활동을 체험하는 것이 민주시민성을 계발하는 것이 아니며 내적 성찰 기회 제공,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민주적인 학교 문화 및 환경 조성 등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는 민주적 과정과 합의 절차의 경험 유무에 따라 학생 간 질적 차이가 존재함을 밝히며 보다 바람직한 학생자치활동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자치활동 경험의 내적 성찰 기회 제공,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민주적인 학교 문화 및 환경 조성 등이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데 의미가 있다.

김유정(2020)은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자치활동의 참여 양상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하여 의미 있는 학생자치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단위 학교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교육방법에 대한 합의점 도출, 학교 운영 사항이나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 교사의 역량과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학생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단위 학교에서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목표와 교육방법에 대한 합의점 도출, 학교 운영 사항이나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 교사의 역량과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서재민(2020)은 서울 · 중학교 학생회 임원들의 활동 경험을 관찰한 결과, 자치활동 경험에서 자동적으로 민주시민성이 함양되는 것이 아니라 민주시민성 함양의 촉진과 저해 요인이 있음을 확인하고,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정책 과제의 단위학교 안착, 모든 학교구성원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성 함양을 위한 경험 제공, 학교구성원이 직접 만들어가는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이 필요함을 밝혔다. 이 연구는 구체적인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데 의의가 있다. 특히, 학생회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성 함양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학생자치 선순환 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자치활동 전반에 실질적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을 밝혔다.

한편, 송수지 · 김정민 · 남궁지영(2012)은 데이터분석을 기반으로 한 양적 연구로 중등학교 시기의 학생회 활동이 청소년기 사회자아개념 성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는 자치활동이 사회성 향상에 유익하다는 선행연구들과 대립한 결론을 내렸으나 맥락적 상황이나 진의 여부를 파악하지 못하면서 양적 연구의 한계를 보였다.

오효정 · 이진석(2012)은 학생자치법정이 학생들의 인간의 존엄성, 합리적 의사결정, 준법정신과 같은 민주시민의식을 고취하는데 효과적인 반면, 사회참여 행동에는 유의미하지 않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자치활동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지식적 측

면에서는 도움이 되나 실천적 태도를 함양하는데 유의미하지 않다는 민주시민교육의 안고 있는 고질적 문제점을 꼬집는데 의미가 있으나, 이 문제에 대한 원인과 개선점을 밝히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반면, 박가나(2001)는 학생자치활동 참여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연구로 학생들이 학생회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과 자신의 의견을 건의하고 항의하는 것, 캠페인 참여와 같은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경험이 정치적 효능감을 높임을 밝혔다. 또한, 황미영·박성혁(2014)은 중학교 3학년 학생 357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학급임원활동과 학급회 참여 경험, 개방적 학급풍토가 학생의 정치자신감과 흥미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위 연구들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학생자치활동 중요성과 참여 경험의 필요성을 확인한데 의의가 있다.

이들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자치활동은 공동체 의식, 정치 효능감, 법의식, 사회참여 능력, 갈등해결 능력, 리더십 기술 등 여러 민주시민성을 향상시킨다는 공통적인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김건아(2019), 김유정(2020), 서재민(2020) 등의 연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얻고 있는지 포괄적으로 탐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의 과정을 살펴봄에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한데 의의가 있다.

김건아는(2019)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학생들의 자치활동 경험의 내적 성찰 기회 제공, 정규 교육과정의 내실 있는 운영, 민주적인 학교 문화 및 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김유정(2020)은 학교 운영 사항이나 행사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결정 참여, 교사의 역량과 지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서재민(2020)은 학생회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시민성 함양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학생자치 선순환 체계가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자치활동 전반에 실질적 민주시민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 참여 양상을 관찰과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 학생들이 실제로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현장의 요구를 분석하고,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제III장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2. 연구 참여자
3. 자료 수집 방법
4. 자료 분석 방법



## III.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생자치와 관련하여 보다 실효성 높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현장의 필요와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장에서는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어떤 참여와 경험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를 설계하고, 이에 적합한 학교 및 연구 참여자 선정, 자료 수집과 분석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나 학생자치활동의 민주시민성 증진 효과에 대해서는 밝혀진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에 어떤 양상으로 참여하고 있고, 또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그 과정을 보다 자세하고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사례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 연구 방법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또는 ‘왜’의 연구문제에 답하기에 적절하며, 연구자의 통제가 필요 없고, 동시대에 실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다룰 때 쓰이는 연구방법이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학생들의 경험에 대한 상세하고 심층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을 활용하였다.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관점과 생활 세계, 의식, 주관성,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연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목적적인 연구방법”(김영천, 2012)이다. 이와 같이 학생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과 함께 학생들의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고 학생들의 경험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반구조화된 형태의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담에서 학생들과 나눈 이야기들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고 면담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참여관찰을 통해 보완하였다. 참여관찰은 연구참여자들 또한 미처 인식하지 못할 만큼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부분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며 연구 현장의 실제 상황과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기술하는데 유용하다(김영천, 2012:270)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과 민주적 학교 풍토가 학생들의 경험에 차이를 줄 수 있어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으며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학교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연구에서 소개되는 학교는 학생자치활동에 있어 학생들에게 많은 자치권을 부여하고 교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며 학교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절차를 중요시하고 되도록 모든 학생의 참여를 격려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더불어, 최대한 많은 학생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민

주시민교육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학생자치 담당교사는 비록 느릴지라도 학생들이 스스로 자치활동을 운영해나가는 것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으며,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모임뿐만 아니라 학급 내에서도 학급자치를 활성화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자치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초등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전교학생회장 1명, 부회장 1명, 6학년 두레 이꿈이<sup>4)</sup> 6명 등 총 8명의 학생과 학생자치 담당교사 1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진행하고 다모임 및 학급자치활동의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과 참여관찰에서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참여 양상과 경험을 살펴보고 이러한 참여 경험들이 민주시민교육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선정은 학생자치활동이 활성화되어있고, 학생자치활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을 중요시하고,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자치활동 지원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이 높은 학교를 목적 표집하고자 하였다. 학생자치활동이 전교학생회 또는 학년별 학생회 등을 통하여 임원 활동을 하는 소수의 학생 위주로 진행되는 학교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는 학교를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과정에 학생들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학생들이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도 참여하고 있는 학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초등학교는 7년째 어울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어울림학교 예산의 대부분을 사계절 행복학교 및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에 사용하고 있다. 사계절 행복학교는 계절마다 4~5일씩 책가방 없는 날을 운영하며 전교생이 함께 어우러져 마을과 함께 하는 주제 통합수업을 실시한다. 특히 매 행복학교마다 '우리의 힘으로' 프로그램을 배정하여 학생들이 다모임을 통하여 직접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프로그램의 계획, 운영, 평가에 모두 참여한다. 또한 학년별 프로젝트 학습의 경우 학년별로 교사와 학생이 학급회의를 통하여

4) 두레 이꿈이란 ○○초등학교의 다모임 활동에서 6개 두레의 촉진자 역할을 하고 있는 학생들로 각 두레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회의 진행을 돕고 있는 6학년 학생들을 일컫는다. 두레 이꿈이의 주요 역할은 다모임이 진행될 때 각 두레의 구성원을 독려하며 의견들을 수렴하고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다모임 전 사전교육을 통해 다모임에서의 역할에 대해 배우며, 실제로 사전에 모의 회의를 진행해보기도 한다.

프로젝트 주제를 정하고 활동내용을 수립하여 연간 활동한다. 이와 더불어 전교학생회장 및 부회장은 매달 마지막주 월요일 교무회의 시간에 참석하여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교생이 모인 다모임에서 나온 학교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발표하고 학교 운영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한다. 또한 다모임 규정 개정 및 학교생활 규정 개정 등 학생들의 권리를 위해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열어 학생들의 의견을 수합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권리를 찾아가는 움직임이 왕성하다. 또한 연2회 ‘친구사랑 및 생명존중 주간 이벤트’, ‘재능 나눔행사’ 등 다양한 학생회 주관 학교 행사를 운영하고 있다.

연구 참여대상으로서의 적합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 실질적 활동 자료와 외부 인터뷰 자료를 참고하였다. 학교 차원에서 민주적 학교 운영과 함께 학생 자치활동 지원 및 활성화에 힘쓰고 있으며, 학생들 또한 실제로 다양한 활동에 대한 자율적 참여와 민주적 학교운영을 경험하고 있기에 학생자치활동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고 보았다. 연구 참여 학생 선정에 있어서는 학생자치 담당 교사와 함께 논의하여 학급회의를 가장 오랜 기간 경험해 온 6학년 학생 중에서 전교 학생회장 1명, 부회장 1명, 다모임에서 두레 이꿈이로 활동하며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생 6명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 단위는 학생자치활동을 경험한 학생 개개인이다. 학생들 개인이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와 이를 얻은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표 III-1〉 면담 대상자 정보

순	성명	학년	성별	비고
1	황○란	6	여	전교학생회장
2	백○문	6	남	전교학생부회장
3	김○중	6	남	두레 이꿈이(2년차)
4	소○슬	6	여	두레 이꿈이(2년차)
5	윤○영	6	남	두레 이꿈이
6	이○안	6	여	두레 이꿈이
7	이○열	6	남	두레 이꿈이(2년차)
8	임○현	6	남	두레 이꿈이
9	홍○주	-	여	학생자치활동 담당 교사

### 3. 자료 수집 방법

본 프로젝트는 ○○초등학교의 학사일정에 따라 전교학생회장단 선거를 시작으로 다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학생자치활동을 직접 관찰하고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인터뷰)을 진행하여 이를 주요 자료원으로 수집하였다. 이 외, 학교 홈페이지와 밴드에 게시된 학생회 관련 기록물, 활동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수집하였다.

심층면담에서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경험을 묻는 두 가지 맥락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맥락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스스로 살펴보도록 하였고, 두 번째 맥락은 학생자치활동을 얻은 성과와 어려움을 중심으로 학생자치활동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해결점을 찾아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생의 발달정도를 고려하여 심층면담은 먼저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적어보게 한 후, 8명의 연구 참여자가 한데 모여 정해진 순서 없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화하는 식으로 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면담으로 집단면담을 실시한 이유는 또래 집단에 의존하는 청소년기의 특성상 연구자와 혼자 대면하는 것보다 다수의 또래 참여자들과 함께 했을 때 편안하고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보다 깊이 있게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의 기억을 상기할 수 있고 새로운 통찰을 경험할 수도 있다. 실제로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서로의 발언에 동의하거나 반대하며 토론의 형태로 발전되기도 하였다.

### 4. 자료 분석 방법

사례연구방법에서는 사례 그 자체를 이해하는 것이 자료 분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된다. 이를 위해, 전사 작업, 분석 메모, 개방 코딩, 심층 코딩, 주제 발견으로 구체화하여 자료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들과의 심층면담을 녹취한 자료를 여러 번 듣고 전사 작업을 실시하였다. 분석 메모에서는 사전설문지 통계자료, 전사 자료, 이 외, 학교 홈페이지와 밴드에 게시된 학생회 관련 기록물, 활동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코딩의 방향을 결정하였다. 개방 코딩에서는 본격적으로 범주 구성을 위하여 전사된 자료를 여러 번 읽으며, 자주 반복되거나 의미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체크를 하였다. 심층 코딩에서는 개방 코딩에 끌어낸 코드들의 파편들을 모아 범주분류를 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각 코드들 간의 관계를 재구성하고 정리하였으며, 지나치게 코드들을 압축하지 않고 각 코드들의 대표성을 지니면서도 그 의미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일축하려 노력하였다. 마지막 주제 발견에서는 코드 사이의 관계성이나 공통점을 찾아내어 새로운 상위 코드를 생성시키는(김영순, 2018)의 과정을 거쳤다. 궁극적으로 상위 코드를 통해 본 연구의 결론 및 제언에 해당하는 결과를 담을 수 있도록 고찰하였다.

또한 자료 분석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먼저 자료 분석의 초안을 연구 참여자와 함께 살펴보며 피드백을 받았다. 그리고 자료 분석에 있어서 연구자의 사견과 편견이 최대한 개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 참여자들에 대한 이해가 깊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검증을 받았다. 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연구자의 자의적인 잣대로 해석하지 않는지 자문하였다.



## 제Ⅳ장

# 연구 결과

---

1.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양상
2. 학생자치활동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 IV. 연구 결과

### 1.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양상

이 연구에서는 학생자치활동 중 다모임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참여 양상을 살펴보았다. ○○초등학교에서는 다모임은 월 1회(연10회) 전교생이 한데 모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 다모임을 소집하기도 하였다.

다모임은 전교생이 참여하며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 6개의 두레로 편성되어 있다. 각 두레는 6학년 두레 이끔이 학생 1명과 학년별로 1~2명의 학생을 배정하여 6~7명씩 구성되며, 교사도 1명씩 구성원으로 함께 했다. 회의 안건은 크게 행복학교<sup>5)</sup> 프로그램과 같은 학생행사 참여에 대한 안건과 일반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안건으로 나뉘어졌다.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전체적인 회의를 이끌고, 두레 이끔이는 두레의 의견을 취합하고 정리하였다. 이후 투표를 통해 다모임 대표의견을 정하여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이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고, 교무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사 및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있었다.

○○초등학교 다모임은 최대한 모든 학생의 참여를 돕기 위해 각 학생들에게 접착식 메모지를 나누어주고, 학생들은 접착식 메모지에 안건에 대하여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자기 의견을 적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각 안건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접착식 메모지에 적으면, 두레 안에서 의견을 나누고 논의하며 두레의 대표 의견을 정한다. 각 두레 이끔이는 두레의 대표 의견을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조율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후 투표를 통해 다모임 대표의견을 정하고, 이 의견은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이 교무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한다. 교무회의에서는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사 및 교육과정에 반영한다.

한편, 다모임에는 교사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다모임이 학교의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모든 교사가 다모임의 두레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단, 교사는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나눌 때 직접 의견을 내지 않으며, 두레 토론 시 두레 이끔이와 함께 토론 운영을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 다모임에 교사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다모임에서 결정한 의견이 실제적으로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5) ○○초등학교는 행복학교라는 이름으로 계절마다 일주일정도 기간을 정하여 책가방 없는 주관을 마련하고 학년 및 교과 통합 프로젝트를 연 4회 실시하고 있다.

에 반영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공감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자기들의 결정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결과를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얻게 되었다.

○○초등학교의 다모임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V-1〉 ○○초등학교의 다모임 주제

시기	주요 활동	활동 내용
매월	교무회의 참석	· 매월 1회 교무회의 참석 학생 의견 제시 및 전달
3월	전교학생회장단선거	· 선거 및 전교 임원회 조직 · 다모임 운영 절차, 주요 회의 계획 및 활동 내용 협의
3월	두레 조직	· 두레 조직 및 마음 나누기 활동 · 학교폭력예방교육
4월	봄행복학교 계획 수립	· 봄행복학교 “우리의 힘으로” 프로그램 계획
5월	봄행복학교 평가	· 봄행복학교 평가 및 반성
5월	학교생활규정 개정	· 학교생활규정개정 학생 의견 수렴
6월	여름행복학교 계획 수립	· 여름행복학교 “우리의 힘으로” 프로그램 계획
7월	여름행복학교 평가	· 여름행복학교 평가 및 반성
9월	가을행복학교계획 수립	· 가을행복학교 “우리의 힘으로” 프로그램 계획
10월	가을행복학교 평가	· 가을행복학교 평가 및 반성
11월	겨울행복학교 계획 수립	· 겨울행복학교 “우리의 힘으로” 프로그램 계획
12월	겨울행복학교 평가	· 겨울행복학교 평가 및 반성

위 표와 같이, 정기 다모임의 안건은 주로 행복학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학교교육과정을 수립하면서 사계절 행복학교의 일정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다모임 일정과 주제도 정해지게 된다.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교육과정 워크숍을 통하여 사계절 행복학교의 운영 기간과 대략의 활동 내용을 정하고 시간을 안배하면서, 이때 반드시 2~4시간 정도 ‘우리의 힘으로’라는 학생자치활동 시간을 마련한다. 행복학교를 실시하기 전 다모임에서는 행복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통해 학생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알아보고, 특히, ‘우리의 힘으로’ 시간에 어떤 활동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정한다. 이때, 필요에 따라 별도의 임시다모임을 소집하여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방법을 모색하기도 한다. 행복학교를 마친 후에도 다모임을 열어 ‘우리의 힘으로’를 포함한 행복학교 전반에 대하여 학생들의 개별적인 활동 소감 및 반성의 시간을 가지고, 이를 참고하여 다음 행복학교를 운영하는데 가치 있는 자료로 활용한다.

다모임의 주요 주제가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학교 행사이니만큼 회의는 다소 상기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전체적인 회의를 이끄는 전교회장과 부회장이 안건을 간략하게 안내하고 나면, 두레 이끔이는 각 두레 구성원에게 필요한 경우 보다 세세하게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즉, 전교회장회장 및 부회장, 두레 이끔이로 이루어져있는 6학년 학생들은 다모임을 하기 전에 사전 학급회의를 통하여 다모임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져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전교회장과 부회장은 안건을 한 번 읽는 것으로 안내를 마쳤고,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원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

각 두레별 의견 나누기 시간은 더욱 시끌벅적하였다. 두레끼리 동그랴게 둘러앉은 학생들은 각양각색의 모습이였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접착식 메모지에 자기의 의견을 적기도 하고, 두레 이끔이나 주변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였으며, 몇몇 학생은 조용히 앉아 생각을 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친구들의 의견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매우 드물지만, 두레 이끔이의 계속되는 부탁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레에 있는 친구에게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고, 책상에 엎드린 채로 활동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다독이고 격려하여 의견 나누기에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그림 IV-1〉 ○○초등학교 다모임 두레별 의견 나누기

10분 정도 두레별 의견 나누기가 진행될 때쯤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두레별로 4절지 칸트지에 붙인 접착식 메모지의 다양한 의견들 중에서 두레별 대표 의견을 도출할 것

을 재촉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접착식 메모지에 자신의 의견을 마저 적어 캔트지에 붙인 후, 두레 이끄미의 진행에 따라 대표 의견을 선택한다. 시간적 여유에 따라 두레 구성원들의 생각을 들어보며 협의하여 한두 가지 의견을 선택하는 두레도 있었고, 비슷한 의견끼리 분류하여 가장 많은 의견을 선택하는 두레도 있었다.

두레별 대표 의견이 정해지면 두레 이끄미가 학생들 앞에서 발표하였다. 이때 두레 이끄미는 자기 두레의 대표 의견뿐만 아니라 두레원들의 다양한 생각도 간략하게 함께 소개했다. 학생회장과 부회장은 이를 듣고 칠판에 대표의견을 적었다. 학생들은 자기 두레와 다른 두레의 의견을 들으며 ‘우리의 힘으로’ 시간에 어떤 활동을 만들어갈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시간이 주어졌다. 이후, 학생회장은 학생들에게 어떤 활동을 왜 하고 싶은지 덧붙여 말하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발언의 기회를 주었다. 3~5명 정도의 학생들이 손을 들고 학생회장에게 지명을 받고 발언했다. 이후, 학생회장은 각 두레의 의견을 정리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 어떤 의견을 선택할 것인지 거수로 투표를 진행하였다. 손은 한 사람당 두 번 들 수 있었으며,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의견 두 가지를 ‘우리의 힘으로’ 프로그램으로 채택하였다.

여기서 채택된 두 가지 의견 중 한 가지를 ‘우리의 힘으로’ 프로그램으로 선정하는데, 네 번의 행복학교 중 두 번은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의견으로, 나머지 두 번은 두 번째 많은 선택을 받은 의견이 선정되었다. 이는 다모임 후 6학년 학생들의 학급회의에서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힘으로’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6학년 학생들은 현실가능성을 고려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프로그램은 다모임 다음 날 오후 학교 본관 2층 자유게시판에 공지하였다.

한편,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다모임을 실시하였다. 이때에도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안건을 간략하게 안내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그러나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다모임에서는 두레 이끄미가 각 두레 구성원에게 따로 세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다. 학교생활규정 개정 사안은 기존 규정이 길고 복잡하며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어려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교사의 도움이 필요했다. 이에, 다모임 전 각 학급에서 담임교사로부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4~6학년의 경우 담임교사와 함께 규정을 읽어보며 필요성과 적합성을 살펴보고 수정하고 싶거나 덧붙이고 싶은 내용을 기존 규정 옆에 적어보도록 하였다. 1~3학년의 경우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규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담임교사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학생들에게 제시한 후 어떻게 고치면 좋을지 토의해보도록 하였다. 이에, 전교회장과 부회장은 안건을 한 번 읽는 것으로 안내를 마쳤고, 안건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원

하는 학생들은 없었다.

다음으로는 각 두레별 의견 나누기 시간이 주어졌다. 그런데 학생들은 두레끼리 동그랗게 둘러앉았지만 행복학교에 대한 다모임과 같은 시끌벅적하지 않았다. 두레 이끄미가 두레별 의견 나누기가 진행하였는데, 행복학교에 대한 다모임에서와 같은 활발한 회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두레는 없었다. 4~6학년의 경우 사전에 준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은 종이를 들추어보는 학생들도 있고, 옆 사람이 준비한 종이를 함께 보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저학년의 경우 친구와 잡담을 나누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들이 다수 보였다.

우선 저학년의 경우 학생생활규정 자체가 어렵고 복잡하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비단 저학년 학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이 학생생활규정에 쓰인 단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였으며, 안전에 대한 학생들의 의사결정이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 즉, 학생들은 기존 학교생활규정의 내용에 대한 이해가 낮고, 학교생활규정 개정 논의의 명확한 취지를 인지하지 못했으며, 이와 관련된 다소 복잡한 의사결정과정에서 이해도가 낮았다.

학생들에게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는 행복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보다 복잡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행복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협의와는 달리 학생생활규정 개정 안전의 경우 학생들이 규정에 대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을 건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제로 참석하여 의견을 내거나 참관해 본 학생은 학생 대표 자격으로 학생회 임원인 전교회장과 부회장만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생활규정을 포함하여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과정을 알고 있지 않았다. 이는 비단 학생생활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다모임에서 학교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어려워하였다. 그 이유는 전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다모임에서의 논의의 취지나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었다.

회의 주제에 대한 낮은 이해도는 다모임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저조하게 만들었다. 학생생활규정은 학교에서의 휴대폰 사용이나 생활 지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각종 규제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 이와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생들은 단순히 관심이 없는 주제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것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생활규정으로 논의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크고, 이를 위한 의사결정과정은 학생

회 주도의 행사에 비해 복잡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학생들이 단순히 건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학생들의 의견을 나눈 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실제로 참석하여 의견을 내거나 참관해 본 학생들이 많지 않고 다모임에서 학생들이 논의한 내용들이 추후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떻게 논의되고 반영되는지 알지 못하였다. 이처럼 학교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무지한 탓에 학생들의 다모임에서의 논의가 어떤 의미와 결과를 주는지 알지 못하였다.

학생들은 실제로 경험 해보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복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참여에 관하여 논의할 때 보다 활발한 분위기에서 다양하고 재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하였고, 학생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 다모임 주제가 되었다. 반면, 학생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들은 학교생활규정을 비롯한 학교 운영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낯설게 느끼고 있었으며 이와 관련한 회의 주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다모임에서의 학생들의 참여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러 요소들이 학생들의 참여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 안건이었다. 다모임의 안건은 크게 행복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 행사 참여에 대한 안건과 일반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안건으로 나뉘어졌는데,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교 행사 관련 주제에서 활발하고 편안하게 의견을 제시했으며, 일반적인 학교운영과 관련된 사안은 안건을 이해하고 회의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학생들은 자기들의 결정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결과를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인 반면, 안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안건의 경우, 학생들이 단순히 건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과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학생들은 회의를 통해 얻은 의사결정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이며 눈에 보이는 결과와 영향을 줄 때 보다 높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활발하게 회의에 참여하였다. 반면, 학생들은 안건의 논의 배경이나 이유를 모르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 논의해야 하는 지에 회의의 방향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학생들에게 많은 자율권과 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안건에 대해서는 흥미와 관심이 낮았다.

## 2. 학생자치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

본 연구는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 참여 양상을 관찰과 면담을 통해 살펴보고, 학생들이 실제로 학생자치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분석하고 고찰하여,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심층 면담을 통하여 학생자치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질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짧은 글로 적어보게 한 후, 8명의 연구 참여자가 한데 모여 정해진 순서 없이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화하는 식으로 집단면담을 진행하였다. 집단면담은 연구자와 혼자 대면하는 것보다 다수의 또래 참여자들과 함께 했을 때 편안하고 활발한 분위기 속에서 자신의 생각을 보다 깊이 있게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또한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생각을 들으며 자신의 기억을 상기할 수 있고 새로운 통찰을 경험할 수도 있었다.

학생들의 학생자치활동 참여 양상을 살펴본 결과, 학생들은 자치활동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으로는 한정된 시간, 회의 공간 부족, 예산 운영·편성에서의 제한된 권한,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 미흡 및 무관심으로 인한 학생 간 갈등 등으로 범주화되었다.

### 가. 한정된 시간

학생자치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으로 손꼽은 것은 다모임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다. 정건희·김윤나·최윤진(2010)의 연구에서도 자치활동 실태 및 현황 분석 조사 결과 자치활동으로 인한 가장 힘든 점으로 ‘시간 및 활동 정보 부족’(29.5%)을 가장 많이 꼽았다.

황○란 학생 : 다모임을 거의 한 달에 한 번 하잖아요. 그런데 다모임이 너무 짧아요. 40분 안에 ‘우리의 힘으로’를 정하는 것도 어려운데, 행복학교 안내도 있고, 교장선생님이 그때 상장 같은 것도 주셔서, 우리가 회의 할 시간이 (부족해요).

윤○영 학생 : 우리는 뭘 할지 생각해서 가는데, 보통 다른 학년(학생들)은 안 해오잖아요. 두레 의견 모을 때 거의 우리가 말을 많이 해요. 애들은 뭐할지

적으라고 하면 피구부터 적어요. 그럼 우리가 ‘피구는 지난번에 했잖아. 다른 거 없어?’ (말해줘요.)

임○현 학생 : 맞아요. 1학년 애들은 정말 이상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전체가 같이 하는 걸 찾아보라고 말해주는데, 그럼 시간이 부족해요. 어떤 게 좋은지 얘기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대표할 거 찾으려면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백○문 학생 : 회의를 5-6교시 이렇게 두 시간씩 하면 좋겠어요. 포스트잇에다 쓰고 종이에 붙이고 서로 뭐할지 얘기까지는 그래도 하는데, 마지막에 (두레) 이꿈이가 발표하고 나서 애들이 진짜로 뭐할지는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회의가) 잘 안돼요. 그래서 그냥 재밌는 거 아니면, 그냥 자기 두레한테 손을 들어요.

학생들은 다모임 시간에 논의해야 할 안건에 할애된 회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 안건에 대한 두레별 대표 의견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두레 이꿈이가 두레의 대표 의견을 발표한 후 학생들이 다시 한 번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시간에 쫓겨 촉박하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다모임 운영에 있어 시간 할애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다모임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 외 활동이기 때문이다. 가장 근원적으로 학년마다 교육과정 편제와 시수가 다르고, 교과 전담 또는 외부 강사의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오전에는 교과 전담 또는 외부 강사의 수업이 주로 편성되어 있고, 오후에는 학년마다 5~6교시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교생이 다모임에서 거수투표를 통해 ‘우리의 힘으로’ 프로그램으로 두 가지 의견을 선택하는 것으로 회의를 마치면, 6학년 학생들은 교실로 돌아와 다시 학급 회의를 열어 최종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학교 본관 2층 자유게시판에 공지했다. 최종 의사결정 권한이 6학년 학생들에게 주어졌다. 6학년 학생들은 되도록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의견을 최종 프로그램으로 선정하고자 하였으나, 실제로 연간 행복학교를 4회 실시하면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의견을 2번, 두 번째 많은 득표를 한 의견을 2번씩 선택하였다.

윤○영 학생 : 뭐 할 건지 정하는 것도 길지만, 뭐 할 건지 정한 다음에 진짜 할 걸 짜는 건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모임 시간이 왕창 길지도 않고, 그런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짜려면 애들이 맨날맨날 점심시간 반납하고 우리 반에 와야 될 걸요.

이○열 학생 : 다모임에서 다 (협의하고 결정)하려면 한 시간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장기자랑 하기로 했을 때, 쉬울 줄 알았는데, 신청서 받아야 하고, 순서 짜야 하고, 사회자 맡은 애는 대본 만들고, 그때 제일 많이 나온 게 피구였는데, 그냥 피구할 걸 그랬나 싶고, 그런데 그 장기자랑이 반응이 제일 좋았어요. 시간 내에 한다고 그냥 피구로 했으면 시시했을 거예요.

홍○주(자치담당 및 6학년 담임교사) : 시간이 더 있다면 최종 결정까지도 함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2학년은 5교시까지 있고, 수업이 끝나면 바로 방과 후 학교 활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4학년 아이들 중에는 회의에 더 참여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저도 6학년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고 가는 아이들도 종종 있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렇지, 두 개의 안건 중 하나를 6학년이 최종 선택하는 것은 아쉽긴 해요. 하지만 학년마다 교육과정이 다르니까.

다모임에서 최종 선정된 프로그램의 세부적인 운영 방법이나 내용까지 정할 필요는 없다. 세부적인 방법과 내용을 정하기까지 모든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다모임 안건으로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다모임에 참석한 모든 구성원의 몫이다. 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를 통하여 최종 의사결정까지의 과정을 전 구성원이 함께 할 때, 학생들은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주도성을 함양할 수 있다. 황여정(2018)은 학생자치활동의 긍정적 효과는 검증되었으나,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치활동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이는 누군가가 대신해줄 것이라는 경험적 의존성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건아(2019)는 학생들의 삶과 크게 관련 없는 주제와 제한된 참여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습된 무기력을 체득하게 하며, 그 이후로는 의미 있는 자치활동이 있어도 참여하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는 활동을 기획하고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자치활동 경험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진다고 했다.

학년 초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 프로그램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6학년 학생들이 현실가능성을 고려하여 다모임에서 선택한 두 가지의 의견 중 최종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 동의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 참여자들의 발언에서 제한된 참여에 대한 학생들의 진심을 살펴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실제로 경험 해보고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한 논의로 활발한 분위기에서 다양하고 재치 있는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주도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제한된 참여가 이어진다면 자신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자치활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될 것이다.

## 나. 회의 공간 미비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40명 정도 되는 소규모 농어촌 학교로 전교생이 다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다모임 공간으로는 주로 도서실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교 시설 여건상 유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회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진 않았다. 도서실은 일반 교실의 2.5배 크기로 공간을 반으로 나누어 앞부분은 평소에는 학생들이 책을 읽는 공간으로 사용하다가 다모임을 비롯하여 교육과정 설명회, 학부모 연수, 외부 강사 초청 강의 등 다수의 인원이 모이는 활동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동식 책상과 의자를 배치해 다목적실의 기능을 갖추었고, 뒷부분은 일반적인 도서관의 구조로 도서를 열람하고 대출·반납하며 검색용 PC를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도서관의 출입문은 도서실의 뒤쪽에 위치하고 있다.

학생들은 도서실을 다모임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에 별다른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다. 학교 여건 상 전교생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강당과 도서실 정도 밖에 없는 상황에서 다모임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고, 도서실에는 두레별로 모여 앉을 수 있는 책상과 의자가 충분히 배치되어 있으므로 도서실에서 회의를 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은 없다고 하였다.

이○열 학생 : 다모임을 매주 하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그때 쓰려고 큰 교실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서실, 괜찮은데.

황○란 학생 : 도서실이 너무 넓어서 제가 회의를 할 때나 이꿈이 애들이 나와서 발표할 때 뒤에 있는 애들은 소리가 잘 안 들릴 것 같아요. 그것 빼고는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다 모일 곳이 강당, 도서실, 영어체험실인데. 강당은 좀 그렇고, 영어체험실은 바로 방과 후 학교 하나까.

학생들이 학생자치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제시한 회의 공간은 다모임 공간이 아니었다. 학생들은 전교생이 모두 모이는 다모임 공간이 아닌 학생회 임원 또는 소그룹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학생들만의 별도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학생들은 학생자치 행사의 세부 운영 계획을 세우기 위해 모이거나 행사에 쓰일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장소가 없으며 춤이나 노래와 같은 공연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이 없는 것을 학생자치활동에서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백○문 학생 : 그것보다는 우리가 있을 곳, 그니까 전체 다 말고 몇몇이, 행사 만드는 애들이요. 그런 애들이 모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커도 되고. 책상 같은 거도 없어도 되요. 컴퓨터는 있으면 좋겠고. 검색도 하고, 뭐, 음악 같은 것도 틀면 좋으니까.

소○슬 학생 : 그런 데가 있음 진짜 좋지. 장기자랑 할 때, 애들한테 신청서를 받았는데, 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아무렇게나 우리 교실에 들어와서 그냥 막 주고 가고. 떠들고. 계속 물어보고. 교실이 시끄러웠어요. 장기자랑만 그런 게 아니라 행복학교나 아님 친구사랑 (주간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는 진짜. 쉬는 시간 끝나도 뒷문에서 막 언니 부르고.

김○중 학생 : 글지. 맞아. 복도 같은 데에다가 부스라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애들도 자주 왔다 갔다 하고. 행사 같은 거 하면 막 물건 같은 게 있는데, 놓을 곳이 없어서 교실에다 쌓아놓고 하나까. 교실 물건이랑 학교행사 거랑 뒤죽박죽. 학생회실인가?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현 학생 : 그런 게 생기면 우리끼리 회의할 때도 좋고, 우리 아니어도 다른 학년 애들도 뭐, 말할 거 있을 때 쓸 수 있어서. 또 동아리 애들 춤출 때, 그럴 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교실에서 하는데, 동아리 아닌 애도 있어서, 좀 시끄러우니까 미안하고, 애들이 보니까 창피하고.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학생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실천 활동을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전라북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학생회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8년까지 500~600만원을 지원하던 예산을 2019년에는 1,000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전체 771교 중 353교가 학생회실을 설치했다. 2020년에는 74교에 학생회실 설치 지원 예산을 지원하며, 2023년까지 572개교에 학생자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생회실 설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교실 절반크기(33m<sup>2</sup>) 이상의 학생들의 접근성이 쉽고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내 약 200개의 학교는 유휴 공간 부족으로 향후 학생 수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고려한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2019학년도 학생자치 현황 조사 결과<sup>6)</sup>,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 공간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초등학교 학생자치 공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이러한 물리적 공간의 한계가 학생자치활동의 방해요인으로 나타났다.

#### 다. 예산 편성·운영에서의 제한된 권한

전라북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자치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의 1% 의무 편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을 학생에게 부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학생자치 예산으로 학교 기본운영비의 1%를 편성하고, 이 외 어울림학교 목적사업비에서도 학생자치활동을 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학교 자체에서 편성된 학생자치 예산은 다모임 및 친구사랑 주간 이벤트와 자율동아리 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하고, 학교 행사인 행복학교 '우리의 힘으로' 프로그램과 개별학급의 프로젝트 학습 운영은 어울림학교 목적사업비로 사용하고 있었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예산 및 활동 기획은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맡겨져 있지만, 활동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학교 관리자나 담당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 학생들은 담당교사와 협력하여 활동에 대한 세부 운영 방법 및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획하였으며, 학생들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내용을 정하여 담당교사에게 대략적으로 요구하면, 담당교사가 정확한 수량과 가격을 산정하여 품의하고, 정해진 결재라인을 거친 후, 사용하고 있었다.

6) 민주시민교육과-260(2020.1.10.) 「2019학년도 학생자치 조사 결과에 따른 2020학년도 학생자치 관련 안내」 붙임 2 2019학년도 학생자치 현황 조사 결과 (p.4)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다. 다모임의 경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주제로 회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사전에 활동에 대한 세부 운영 방법 및 소요 예산을 계획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 경비를 사용할 수 있었다. 반면, 다모임이 끝나고 정규 수업 시간 외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방과 후 시간에 학생들이 다모임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운영 계획을 짜고 수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을 구입하려는 경우, 학교 자치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이○안 학생 : 회의 하다보면 갑자기 물건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지난번엔 포스트잇 같은 거가 갑자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준비했는데, 애들이 잘못 썼다고 버리고, 어떤 애는 많이 쓰고, 뭐, 낙서하다가 없어지고, 어쨌든 그때는 우리 반 색종이로 쓰긴 했는데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 갑자기 필요할 때 있는데 막 살 수가 없어요.

김○중 학생 : 간식 같은 거. 회의할 때나 뭐 준비할 때, 그냥 선생님이 선생님 카드를 주십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거도 사오라고. 다모임 돈이 있지만, 그거 쓰려면 당장 못 먹잖아요.

2019학년도 학생자치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자치 예산의 편성·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771교 중 538교로 69.77%로 나타났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75% 이상 학생회가 예산 편성·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 대비 23% 증가한 수치다.

〈표 IV-2〉 2019학년도 학생자치 학생 참여 현황<sup>7)</sup>

학교급별	학교수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		학생회장 당선증 교부		교무 회의 학생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초	419	273	65.15	261	62.29	114	27.20	96	22.90
중	209	158	75.59	133	63.63	86	41.14	89	42.58
고	133	101	75.93	92	69.17	51	38.35	49	36.82
특	10	6	60.00	7	70.00	0	00.00	1	10.00
계(평균)	771	538	69.77	486	63.03	251	32.55	235	30.47

7) 민주시민교육과-260(2020.1.10.) 「2019학년도 학생자치 조사 결과에 따른 2020학년도 학생자치 관련 안내」 붙임 2 2019학년도 학생자치 현황 조사 결과 (p.6)

그러나 이 결과로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학교는 학생회 예산 편성·운영권을 학생에게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의견 제시, 담당교사의 품의 작성, 학교관리자의 결재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이 매번 수반되어야 한다. 학교자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학생들은 관련 의견을 내고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교무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는 직접적인 권한과 영향력이 제한되었다. 학생뿐만 아니라 담당교사 역시 예산 운영 부분에서 학생자치활동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홍○주(자치담당 및 6학년 담임교사) : 예산은 안 적어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매우 풍족하죠. 교장선생님이랑 행정실장님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세요. 그런데 좀 번거롭긴 해요. 계획서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큰 행사 같은 거, 다모임에서 정하는 친구사랑 주간 이벤트, 학교폭력예방 행사, 아니면 학급회의에서 정하는 프로젝트학습, 현장체험, 이런 거는 좀 여유 있게 기안을 하잖아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순간순간 회의하면서, 행사 같은 준비하면서, 갑자기 뭘 요구하면, 좀 난감해요. 간식 같은 건 그때그때 먹고 싶을 때 사주고 싶은데, 기안하고 결재하고 나면 아이들이 가니까, 그냥 제가 사게 되요. 몇 천원, 만 얼마, 이게 더 빠르고 편해서. 사실 이런 거 때문에 (자율)동아리 (담당)해주는 선생님들한테도 계속 미안해요. 동아리는 예산도 많지 않은데, 시시콜콜하게, 계속 기안을 올려야 하니까. 귀찮을 텐데.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20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계획(2020.02)」에 따라 학급자치활동비(학급운영비)와 학생회·학부모회 운영비의 학교회계 집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학급자치활동비(학급운영비)는 일괄 품의 후 카드 결제 또는 개산급 지급 중 학교별로 통일된 방법을 선택하여 집행한다. 학생회·학부모회 운영비는 연간 사용할 운영비성 경비 총액을 학기 초에 일괄 품의한 후 필요할 때마다 학교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비성 경비에는 간식, 물품구입, 선거 경비 등을 포함하며, 자산취득비성 비품의 경우 건별로 품의하여 집행한다.

Dawson(2008)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생들은 교사 혹은 동료에 의해 지시받는다 고 느낄 때 정치에 대한 흥미를 비롯하여 정치자신감, 효능감이 저하되었다(Dawson,

2008; 김유정, 2020에서 재인용).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의 권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들은 자치활동에 대한 의지가 낮아지고 시민성이 제한된다. 그러나 학생에게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 학생이 고려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와 학교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학교회계 집행절차 간소화 방안을 참고하여 연간 사용할 운영비성 경비 정도는 학기 초에 일괄 품의한 후 필요할 때마다 학교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자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가 실효를 갖도록,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부여해야 한다(황여정, 2018).

## 라.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무관심

○○초등학교의 다모임은 2013학년도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3~6학년 학생들만 참여하는 형태이다가 2017년부터는 전교생이 참여하고 있다. 다모임을 통한 의사결정이 학교교육과정에 반영되는 비중이 커지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 학부모 역시 다모임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였다. 특히 행복학교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선택과 참여의 폭이 나날이 확대되면서 저학년 학생들이 다모임에 참여하기를 원하였고, 저학년 담임교사와 학부모 역시 회의 참여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이에 초기에는 3학년부터 참여하였던 다모임을 전교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학년교육과정에 연 10회 정기 다모임 운영 시간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활동 영역으로 똑같이 편성하였다.

다모임은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6개의 두레로 조직되어 있다. 각 두레는 6학년 두레 이끄미를 포함하여 6~7명의 학생과 1~2명의 교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때 학생 구성원은 학년별로 1~2명씩 고르게 섞일 수 있도록 배정한다. 배정방법은 학년 초 무작위 배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나치게 한 두레에 비슷한 성향의 학생들이 집중되지 않도록 교사가 조정하였다. 이와 같은 두레 조직을 통하여 저학년 학생들이 고학년 학생들과 어우러지며 자연스럽게 회의의 과정과 방법을 익히도록 하였다.

두레 이끄미는 각 두레에서 촉진자 역할을 했다. 두레 이끄미는 주로 6학년 학생들이 맡았는데, 전교학생회장 및 부회장과 함께 사전 학급회의를 통하여 다모임 안전에 대하여 미리 살펴본 후, 다모임에 임했다. 두레 이끄미는 두레 구성원에게 필요한 경우 보다 세세하게 안전에 대하여 설명하고, 회의 참여를 독려했으며, 두레의 대표 의견을 정하여 발표했다. 다른 구성원들은 안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접착식 메모지에 적고 두레의 대표 의견을 정하기 위하여 협의에 참여하였으며, 두레 이끄미를 대신해서 대표 의견을 발

표하기도 하였다.

다모임의 주요 안건이 학교 행사와 같은 학생들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였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매우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했다. 안건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접착식 메모지에 자기의 의견을 적기도 하고, 두레의 대표 의견을 정한 후에는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나 방법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은 안건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며 자신의 의견을 적지 않고 활동 내내 무표정으로 일관하기도 했다. 1~3학년 학생들의 경우, 두레 이꿈이나 주변 교사에게 수시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며, 회의 중에도 계속해서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책상에 엎드린 채로 활동을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안 학생 : 솔직히 그런 애는 다모임에 뭐 하러 오는지 좀 모르겠어요. 생각해서 적어보라고 해도 안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만 하고, 다시 알려 줘도, 그냥 언니가 써 달라고 그럴 때, 그때는 좀 짜증이 나요.

소○슬 학생 : 자기가 쓴 게 대표(의견)가 안됐다고 막 화냈을 때, 일부러 안 뽑은 게 아니고 우리 두레 애들이 같이 얘기해서 정한 건데, 막 머리를 때리고 막 씩씩거리고, ○○쌤 없었으면 큰일 날 뻔 했어요. 힘들어요. 그럴 땐.

이○열 학생 : 그냥 입을 꼭 닫고 있어도 힘들어. 종이에 쓰긴 쓰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럼 그냥 뭐, 하는 애들끼리 얘기해서 정하죠. 그럼 또 빠져있어요. 자기들 맘대로 할 거면서 그런다고 궁시렁대요.

김○중 학생 : 생활규정? 그거 할 때는 왜 이런 걸 우리보고 말하라고 하냐고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도 있는데, 1-2학년 애들한테는 너무 어렵잖아요. 말이. 어차피 어른들이 정하면 되는데, 어렵다고 짜증내고, 자기들끼리 딴 얘기만 하고.

임○현 학생 : 맞아요. 생활규정은 너무 어려웠어요. 무슨, 공부하는 것 같고, 끝도 없고. 휴대폰 사용하는 거 얘기할 때는 애들이 관심을 보였는데, 그거 말고는. 저도 잘 모르는데, 애들이 질문할까봐 (걱정했어요.) 휴대폰 이런 것도 다시 부모님들한테 물어봤잖아요. 우리 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었고.

학생들은 두레 구성원의 무관심과 회의 주제 및 의사결정 과정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학생자치활동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는 다모임 안전이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상위 협의 기구를 거치는 사항인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다모임에서 진행되는 행사 또는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불평 또한 없어서 회의에서 낼 의견이 없는 몇몇 학생들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실제로 자기가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어떻게든 두레의 대표 의견은 정해지고 다모임의 의사결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친구와 잡담을 나누는 등 회의와 관계없는 일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러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계획에 순응하며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의견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활동에 대한 권리 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생의 자발적 참여 의지와 주도성을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이러한 학생들의 무관심한 태도는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상위 협의 기구를 거쳐야 하는 경우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서 나타났다. 학생들은 단순히 관심이 없는 주제에 대한 참여도가 낮은 것보다도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에 대해 낮은 참여도를 보였다. 또한 학생들이 다모임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반영되는 경우도 있으나, 굳이 학생들의 의견이 없어도 학교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학교 행사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했다. 즉, 학교 운영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다.

한편, 일부 저학년 학생들은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화를 내거나 토라지며 회의에 불만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자기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고학년 학생들의 완력이라고 생각하며,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경우, 교사가 해당 학생을 다독이고 격려하여 의견 나누기에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태도는 전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다모임에서의 논의의 취지나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의 논의가 전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의미와 결과를 주는지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더불어 다모임 의사 결정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만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리 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제 V 장

## 결론 및 제언

---

1. 결론

2. 제언



## 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지금까지 다모임, 학생자치법정, 학생회 주관 행사 등을 경험한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례 연구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양상과 학생자치활동의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양상을 살펴보았다. 여러 요소들이 학생들의 참여도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 안건이었다. 다모임의 안건은 크게 행복학교 프로그램과 같은 학교 행사 참여에 대한 안건과 일반적인 학교운영에 대한 안건으로 나누어졌는데, 학생들은 학교 행사 참여에 대한 안건에 대하여 자기들의 결정이 학교생활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결과를 통하여 성취감을 느끼고 학교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는 등 다양한 성과를 보인 반면, 안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요지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 회의에 소극적으로 참여하거나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또한 학교 운영과 관련한 안건의 경우, 학생들이 단순히 건의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생의 의견과 더불어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 또한 수렴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해당 주제에 대한 거리감을 느끼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무의미하다고 여기기도 하였다.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자치활동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심층 면담을 통해 알아보았다. 학생들은 한정된 시간, 회의 공간 부족, 예산 운영·편성에서의 제한된 권한,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의 이해 미흡 및 무관심으로 인한 학생 간 갈등 등으로 어려움으로 범주화할 수 있었다.

첫째, 학생자치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으로 다모임 시간이 부족한 것을 손꼽았다. 학생들은 다모임 시간에 논의해야 할 안건에 할애된 회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 안건에 대한 두레별 대표 의견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두레 이끄미가 두레의 대표 의견을 발표한 후 학생들이 다시 한 번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시간에 쫓겨 촉박하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의지와 주도성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에게 제한된 참여가 이어진다면 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의지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학생회 임원 또는 소그룹의 학생들이 모일 수 있는 학생들만의 별도 공간 확보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2019학년도 학생자치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 공간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초등학교 학생자치 공간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학생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실천 활동을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만큼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생자치활동 예산 운영·편성에서 제한된 권한으로 인한 어려움이다.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예산 및 활동 기획은 기본적으로 학생에게 맡겨져 있지만, 활동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학교 관리자나 담당교사에 의해 이루어져 있음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결재 라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학생들은 다모임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부 운영 계획을 짜고 수시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때그때 필요한 물품이나 간식을 구입하려는 경우, 예산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학생들에게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지만, 학생자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가 실효를 갖도록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학생들은 두레 구성원의 무관심과 회의 주제 및 의사결정 과정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학생자치활동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학생들의 이러한 태도는 전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다모임에서의 논의의 취지나 결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학생들의 논의가 전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서 어떤 의미와 결과를 주는지 보다 자세하게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모임 의사 결정과정에서 일부 학생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불만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회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권리 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 2. 제언

학생자치활동이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주체적으로 실행하는 교과 외 활동이다.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학생은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 다른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과 다양한 단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공동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은 학생자치활동을 통하여 민주사회의 발전에 관심을 갖으며 시민의 권리를 깨닫고 이행하는 경험을 쌓아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다모임을 비롯한 다양한 형식의 학생회의는 학생들이 민주적 가치를 경험하고 실현해보는 장이 되어야 한다.

○○초등학교 다모임을 중심으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양상과 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실효성 높은 정책 실행을 위한 현장의 필요와 요구는 다음과 같다.

### 가. 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

학생자치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으로 손꼽은 것은 다모임 시간이 부족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다모임 시간에 논의해야 할 안건에 할애된 회의 시간이 매우 짧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했다. 안건에 대한 두레별 대표 의견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두레 이꿈이가 두레의 대표 의견을 발표한 후 학생들이 다시 한 번 어떤 결정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거의 주어지지 못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시간에 쫓겨 촉박하게 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다모임 운영에 있어 시간 할애에 대한 어려움이 생기는 원인은 다모임이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 외 활동이기 때문이다. 가장 근원적으로 학년마다 교육과정 편제와 시수가 다르고, 교과 전담 또는 외부 강사와의 협력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에, 학교교육과정 수립 시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다모임의 편제와 시수가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공통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사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 ○○초등학교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다모임을 실시하고 있다. 학년 초 기본 시간표에 다모임 시간을 우선 배정하고, 전담 교과와 외부 강사 협력 수업 시간을 조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다모임 시간에 논의해야 할 안건에 할애된 회의 시간이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말하고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초등학교는 주별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2차시씩 연이어 편성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1차시는 학급별로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2차시에는 다모임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이유는 다모임 안건에 대한 사전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6학년을 제외한 학생들의 다모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특히 다모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저학년의 경우 안건의 취지나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두레별 협의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회의의 진행을 가로막아 시간을 지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에, 다모임 전에 학급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마련하여, 사전에 회의 안건에 대해 다시 한 번 숙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불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줄이고 보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다모임 시간이 온전히 다모임을 위한 시간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이 시간에 특별 교육이나 회의 안건과 관련 없는 각종 전달 사항 안내가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할애된 회의 시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배당된 정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만 내실 있게 운영하여도, 시간 확보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해소될 것이다.

#### 나. 학생회실 등 공간 확보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학생자치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학생회실 등과 같은 학생자치 공간은 학생들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실천 활동을 논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자치 활동에 대한 소속감을 높일 수 있다.

전라북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의 2019학년도 학생자치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고등학교에 비해 초등학교의 학생자치 공간 확보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초등학교 학생자치 공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현재 학생회실 설치 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교실 절반크기(33㎡) 이상의 학생들의 접근성이 쉽고 안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도내 약 200개의 학교는 유휴 공간 부족으로 향후 학생 수용 계획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유휴 공간이 부족한 학교에서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간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 공간 구성에 있어 폐쇄성을 낮추고 관계성을 높이는 방법을 구안

해야 할 것이다. 공간혁신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한국국제협력단의 사례를 통해서 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구성하는 대책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건물의 입구 공간을 다양한 접견 공간(미팅룸)으로 재배치하여 소통과 참여를 원활히 하고, 부서장 공간을 개방하여 공간의 활용성을 높였다. 즉, 별도의 유희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공간의 개방과 재배치를 통해 소통과 참여, 공간의 다각적 활용이라는 효과를 얻었다.

이 외에도, 최근에 많은 학교에서 교장실에 소파와 테이블을 없애고 회의용 테이블을 들여놓는 것으로 개방형 공간으로 바꾸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서울 상천초등학교는 교장실을 학생들에게 내어 주고 싶다는 교장 선생님의 파격적인 결정에 따라 교장실이 다른 공간으로 바뀌었다. 교장실을 중앙 현관 바로 옆으로 옮기고 통유리로 된 벽을 세워 개방형 공간으로 바꾸고, 레일형 커튼을 달아서 필요에 따라 비개방형 공간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 삼양초등학교는 도서실 내부 분위기를 카페처럼 아늑하게 바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로운 의사소통 또한 가능해지도록 하였으며, 남양주 호평중학교는 다소 칙칙하고 어수선한 중앙 현관을 학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밝고 열린 공간으로 재구성하여 학생 휴게 공간으로써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공간을 보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서울 삼양초등학교는 옥상으로 올라가는 유희 공간을 바꿔보자는 합리적 제안을 통해 올라가는 계단에 자유롭게 낙서할 수 있는 공간을 꾸밈으로써 학생들의 소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계단 옆 자투리 공간과 복도 공간을 회의실로 조성하는 등 공간 활용의 사각 지대를 없앴다.

위의 사례로 계단 코너에 수납형 소파를 제작해 휴게시설을 갖추고, 화이트보드 스티커나 칠판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벽면을 꾸미는 등의 새로운 시각을 실천하는 것으로 유희 공간이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게 장소이면서 동시에 학생회실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학생자치활동을 활성화하고 건전한 민주시민 육성정책 일환으로 지난 2013년부터 학생회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572개교에 학생자치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실 절반크기(33㎡) 이상이라는 조건 대신 학교 공간을 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폐쇄성을 낮추고 관계성을 높이며 학생들의 접근성이 쉽고 안전한 공간에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마련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다.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학생의 권리 보장

학생자치활동이 내실 있게 운영되려면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가 실효를 갖도록,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권한과 영향력을 부여해야 한다(황여정, 2018). 특히, 학생회 예산·편성 운영 부분에서의 학생의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회 예산·편성 운영 권한을 학생에게 부여하고 있다. 2019학년도 학생자치 현황 조사 결과에서도 학생자치 예산의 편성·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는 771교 중 538교로 69.77%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고등학교는 75% 이상 학생회가 예산 편성·운영권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결과로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예산 편성·운영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로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학생의 의견 제시, 담당교사의 품의 작성, 학교관리자의 결재에 이르는 복잡한 과정이 매번 수반되어야 한다. 학교자치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학생들은 관련 의견을 내고 전교학생회장과 부회장은 교무회의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학생들의 의견에 대해 발표하는 것으로 일정 부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반면, 예산을 운영하는 데에는 권한과 영향력이 제한되었다.

현실적으로 학생에게 학생자치 예산 편성·운영에 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다. 학생이 고려하지 못하는 다양한 변수와 학교 환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회 예산·편성 운영 권한을 보다 확대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교육청의 학교회계 집행절차 간소화 방안을 참고하는 것을 제안한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회 운영비의 학교회계 집행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연간 사용할 운영비성 경비 총액을 학기 초에 일괄 품의한 후 필요할 때마다 학교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운영비성 경비에는 간식, 물품구입, 선거 경비 등을 포함하며, 자산취득비성 비품의 경우 건별로 품의하여 집행하고 있다.

보다 내실 있는 학생자치활동 운영을 통하여 학생들의 자치와 참여가 실효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생회 운영비의 학교회계 집행절차를 간소화하고 운영비성 경비에 한해서 경비 총액을 학기 초에 일괄 품의한 후 필요할 때마다 학교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 라.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의 참여 보장

학생들은 두레 구성원의 무관심과 회의 주제 및 의사결정 과정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을 학생자치활동의 어려움으로 꼽았다. 이는 다모임 안건이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등 상위 협의 기구를 거치는 사항인 경우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 운영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며, 학생들의 의견보다는 교사와 학부모의 의견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동안 학생회의에서 학생들의 참여 형태는 단순히 주어진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었다. 학생들이 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후 추가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과정 없이 학생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의사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전달받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학생들의 단순 의견 제시로 끝나는 참여는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의 의의와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박희진(2019)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 의결사항의 반영 여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등 질적인 측면이 학생들의 시민의식에 유의미한 영향을”주었음을 밝혔다. 학생들이 다모임에서 논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논의한 것을 직접 실행에 옮김으로써 학생들의 참여의 질이 향상되는 것은 학생들의 시민의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학생자치활동이 공적 영역에 대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서 공동체 차원에서 공동의 결과를 도출하고, 도출된 결정에 대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실행에 옮겨보는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로써 학생들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끼며 적극적 참여에 더욱 동참할 수 있다.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들의 단순 의견 제시로 끝나는 참여는 학생들로 하여금 참여의 의의와 흥미를 이끌어내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회의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회의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의견이 의사결정 과정에 실제적이고 결과적으로 반영된다는 시각적인 보상을 느끼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회의록을 작성하여 학생들의 참여를 기록을 남기는 것이 필요하다. 자신의 의견이 기록으로 남아 학교 의사결정 과정에 자신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회의록을 통하여 다모임 과정에서 어떠한 의견들이 있었고, 어떠한 협의 과정을 거쳤으며,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의견이 의사결정에 반영되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도록 한다. 회의를 마친 후, 학생회실 또는 학생들이 자주 오가는 공간에 회의록을 게시하여, 회의록이 그저 문서로 보관하는 서류가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생명력 있는 시

각적 보상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적극적 참여에 대한 동기 부여로 성공 경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교생이 참여하는 다모임의 특성상 학교 행사나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주제들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제는 범위가 크고 넓으며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워서 많은 학생이 의사결정 참여에 대한 성공 경험을 느끼기는 어렵다.

○○초등학교에서는 학교 텃밭에 심을 꽃과 동식물을 정하는 것과 학교에 새로 생기는 장소들에 대한 이름을 학생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정하였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을 자신의 의견 제시로 결정하는 것, 자신의 의견으로 학교의 환경이 변화하는 모습을 경험하는 일에 기쁨을 느끼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른 일들에도 관심을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작은 의사결정 참여 성공 경험은 학년이 섞인 두레 회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참여로 이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교육부(2015),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 곽혜송·홍미화(2017), 「초등학교 민주시민교육 실천 유형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24(1), 11-30
- 김건아(2019), 「민주시민교육으로서 학생자치활동 경험에 대한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래연(2020), 작은 학교 다모임, 미래와 경영
- 김영순 외(2018), 질적 연구의 즐거움, 창지사
- 김영천(2016), 질적연구방법론 1, Bricoleur(제3판), 아카데미프레스
- 김유정(2020),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서 학생자치활동의 참여 양상에 대한 질적 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나·정건희·최윤진(2010), 「청소년자치활동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복지연구, 12(3), 1-23.
- 김위정(2016), 「학생자치활동 경험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1), 179-203
- 권선희(2017), 「Paulo Freire 전략 기반의 학급 회의가 초등학생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 서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가나(2001), 「학생자치활동 참여가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가나(2008), 「청소년 참여활동이 공동체 의식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상준(2018), 사회과 교육의 이해, 교육과학사
- 서윤수(2009), 「참여를 통한 초등학교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 :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 사례」,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서재민(2020), 「학생회 활동을 통해 본 민주시민성 함양의 촉진과 저해 요인」, 성공회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송수지 · 김정민 · 남궁지영(2012), 「중등학교 시기의 학생회활동 경험이 청소년 자아 개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열린교육연구, 20(1), 117-139.
- 신두철(2018), 「학교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과 정책 방향」, 교육정책포럼, 304, 11-13
- 심성보(2017),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현황과 과제」, 한국학논집, 67(10), 93-122
- 염경미(2018), 선생님, 민주시민교육이 뭐예요?, 살림터
- 오효정 · 이진석(2012), 「학생자치법정이 고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7(2), 93-116.
- 유제순(2017),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통합적 설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방안」, 내러티브와 교육연구, 5(3), 109~137
- 윤종원(2014),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학급공동체 운영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병환(201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전라북도교육청(2020), 2020주요업무계획
- 전은희(2014), 「학생자치법정의 실제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서울 k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17(1), 1-62.
- 정철민(2017), 「한국 시민교육에 대한 비판적 고찰; 시민교육의 목적과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철학연구, 39(2), 175-192
- 정구영 · 박대식(2020), 「초·중등학교 학생 자치활동의 변천 과정」, 교육사학연구 제30집 제1호, 2020), 55-98
- 정형수 · 김경식(2017), 「초등학생들의 자치적인 학급규칙 제정 및 실천 과정에 대한 참여관찰 연구」, 한국교육사회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7(1), 82-106.
- 한희택(2009), 「학급자치활동이 초등학생의 법의식에 미치는 영향」, 법과인권교육연구, 2(1), 43-72

- 
- 함은혜 · 백선희(2016), 「고등학생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761~783
- 황미영 · 박성혁(2014), 「학급 자치활동과 학급풍토에 따른 정치 태도 형성」, 시민교육연구, 46(3), 283-308.
- 황여정(2018), 「학생자치활동이 중고생의 학교교육 효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중등교육연구, 66(2), 669-699
- John W. Creswell.(2013). 질적 연구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3rd ed.)]. 조흥식 외 역(2015). 학지사





